

천번 만번 (열왕기하 13:14-25)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은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요한 복음 19:30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다. 이 언약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하심을 믿는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에는 그 비밀을 누린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내것이 되어야 하고 내 현장에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훈련이다. 우리는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또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것을 치유하고 답을 얻어가는 것이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토요일부터 237 훈련을 시작하려고 한다. 모든 중직자, 전도자 다 와서 함께 훈련받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오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민족 중직자들도 방향이 같아야 하고 한 메시지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변화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가 237 향해 가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라고 보면 된다. 우리의 근본은 복음이다. 복음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수 없는 것이 신자이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복음의 약속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부족한게 많고 하나님의 소원에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이것을 채우는 자리가 훈련시간이다. 그래서 메시지 흐름을 타고 말씀의 흐름을 내 인생에 심는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지옥을 안 가는 것만해도 감사한 일이다.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고 일생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훈련도 하고 말씀도 받고 하는 것이다. 얼마전에 우리가 우상숭배자 이스라엘왕 예후에 대한 말씀을 봤다. 분명히 우상을 숭배할 줄 알았다. 그런데도 그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셔서 축복했다. 그의 기록을 읽어보면 아주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다.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행했다. 그리고 기록에는 나타난 것은 없지만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죽여버렸다. 근본은 다르다. 우상숭배자의 근본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완전히 해버렸다. 그래서 그에게 귀중한 약속을 주셨다.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근본은 항상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 사명은 근본은 아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이 생각이 영원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 바란다.

1. 천번, 만번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왕은 요아스였는데, 아합의 가문을 정리한 예후의 손자이다. 오늘 본문 첫절에 보면 그가 죽음에 가까워 있는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렸다. 요아스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예후와 같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다.

그래도 아는 것이다. 엘리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울고 있는 왕에게 엘리사가 이야기 했다. 17절에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 활을 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였다. 아람을 이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절에 보면 화살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데 왕이 세 번 치고 그쳤다. 그런데 엘리사는 화를 냈다.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 하기를 5-6번이라도 쳐야 하는데 3번밖에 안 쳤다는 것이다. 만일 5-6번 쳤으면 완전히 진멸했을텐데 이제는 3번밖에 못 이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과연 요아스가 아람과 전쟁해서 3번 이겼다. 그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성읍을 회복했다.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본 말씀이다. 내가 처음 이 말씀을 대했을 때, 그러면 뭘 어찌라는 말이냐는 생각이 들었다. 땅을 치는 것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몇 번 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찌라는 말이냐. 다섯 번 쳐야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다. 아니면 다 아는 선지자가 가르쳐 주든지, 그러면 백번이든 만번이든 안 쳤겠는가?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한 십년 넘게 의문의 상태로 있었다. 복음이 없으니 그 이면의 생각을 못한 것이다. 내 생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의문 상태로 있지, 이것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있다가 복음을 알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씩 눈이 열리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에게 먼저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눈이 열리게 된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면서 이 본문에 대한 몇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 첫째는, 그것을 그 순간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요아스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깊이 있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깊이 누리는 사람은 아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된다. 그런데 다윗같은 사람은 깊은 영적 소통이 있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천년전 사람이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내 주님이라고 바로 이야기 했다. 천년전 사람인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리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인가를 히브리서 7장에 설명한다. 아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멜리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나타난 하나님은 그리스도이다. 즉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자연 성령인도같은것에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즉 몇 번 치게 되는 것이 순간적인 성령인도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지 않고 누림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못 들어간다.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런 생각 자체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 치고 말았다. 많이 쳤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 생각할수 있는 것은 만일 요아스가 치기 전에 엘리사에게 먼저 물어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만일 물어볼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왔다면 엘리사가 아마 설명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웃통 벗고 백번 천번 만번 쳤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화살로 땅을 치는데 아람은 죽는 것이다. 그것이 그 순간인데, 물어볼 생각도 안난 것이다. 요아스 개인 인생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람의 역사

에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다. 사람들은 보고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 화살 보고 땅을 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에 가? 그 이름으로 응답이 돼? 이런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화살가지고 땅을 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가 인생의 전체를 좌우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기에 요아스 왕 개인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걸려 있던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아찔한 순간이다. 그리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곳에 산다면 얼른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일수도 있다. 요아스가 그렇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본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몇 번을 쳐야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은 잘 모른다. 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도 쳐야 한다. 그리고 그 치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놓은 단어가,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냥 친다는 것이다. 24시간 365일을 우리는 이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이다. 당시는 아람을 상대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상대한다. 우리는 남미와 미국과 237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고 보좌야 아니냐는 것이다. 당연히 천번이고 만번이고 계속 쳐야 한다. 언약잡고. 천번 만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계속 세상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선포함으로 땅을 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계속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윗은 골리앗과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긴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믿는가? 당연하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언약 잡고 계속 땅을 치는 것이다. 24시간 평생을 두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주업이다. 우리의 미래는 사단을 죽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쳐라. 계속 쳐라. 평생, 24시간. 내가 너의 미래에 너에 대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다. 이게 나에게 언약으로 들어오면 망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겠습니다. 내가 그 언약으로 천번이고 만번이고 계속 땅을 치겠습니다. 24시간 평생을 두고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 망대가 되고 언약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나의 힘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이고 우리의 주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저런 육신적인 일도 한다. 그 육신적인 일에 기적을 만들어가는 또 한번 땅을 치는 역사가 될 것이다. 눈을 뜨고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다시 한번 땅을 치는 것이다.

2. 영적인 것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 결정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다. 그러나 육신적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잡혀 있다. 요아스는 이 일 후에도 왕궁으로 돌아와 왕의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한 왕으로서 중요한 일들은 그것을 아무리 해도 그가 미래에 화살을 잡고 땅을 쳤던 그 일에

잡혀 있는 것이다. 그 횃수에 잡혀서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육신적인 일을 해도. 왕의 일을 아무리 잘 해도 횃수 세 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육신적인 일이 영적인 일에 잡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적어도 아람 나라와의 문제는 그랬다. 그 당시에는 아람이 계속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에게는 적이 아람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는 계속 금송아지를 섬기기 때문에.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럴려면 전쟁을 이겨야 한다. 만일 전쟁에 지면 죽게 되는 것이다. 왕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여호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때도 계속 쳐들어 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다. 그래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친 횃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영적인 일 하나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다. 왕으로서의 인생이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가 정해져있었던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인트가 이것이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쳐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여기에 너의 인생 모든 것이 걸려 있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계속 쳐라. 너의 미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영적 행위에 걸려 있다는 것이 본문 메시지이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행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 다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또 누리고 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영적 행위이다. 그렇게 해서 깊이 누림 안으로 들어감으로 많은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회복하고 사단을 정복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잡히지 않는 해방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다. 이것은 정복에 대한 완전한 답이다. 이 누리는 것이 우습게 보이지만 그것이 땅을 치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미래를 결정했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해서 증인이 되어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다. 근본 영적인 것을 지속하게 되면 정복하게 된다. 그 때 세계도 보이고 미국, 남미도 보이고 우주도 보인다. 그리고 그 우주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도 보인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근본 영적 행위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는다. 그 근본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하지도 않다. 같은것에 계속 제한적인 집중을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거의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요아스처럼 우리도 이런 저런 일을 한다. 왕이 해야 할 육신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그 일은 이 언약을 내 인생에 심는 과정일 뿐이다. 천번 만번 땅을 치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언약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다 이것이 답이다. 발견되어지면 언약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이미 계속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미래를 정복할 것이고 우주를 거쳐 매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